



휴식 취하는 중대백로 30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철새도래지를 찾은 중대백로들이 재이동에 앞서 잠깐의 휴식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공식 선거전 앞두고 TV토론 ‘승부수’

혼전 속 무당·부동층 유인할 최적 수단으로 부상
한라일보 등 언론3사 오늘부터 후보 초청 토론회
첫날은 송재호·장성철·고병수·박희수 후보 격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들이 짧은 시간에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TV토론회

에 사활을 건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후보들이 기자회견과 공약 발표 등을 내놓고 있지만 비대면 선거운동의 한계와 이슈 잡식 등으로 사상 조유의 '깜깜이 선거'로 전략하고 있다.

이에 후보들은 그동안 준비한 정

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TV토론회를 꼽고 있다.

특히 도내 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어 TV토론회가 무당층과 부동층을 끌어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각 후보 진영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TV토론회에서 주요 정책공약을 제시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라일보와 JIBS·제민일보 등 언론 3사는 31일 오후 JIBS 스튜디오

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미래통합당 장성철, 정의당 고병수,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나와 격론을 벌인다. 이어 1일에는 제주시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토론회를 벌인다. 2일은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출마의 변 >주제질문 >주제지정 상호토론 >공통질문 >후보 주도권 토론1 >반론 주도권 토론1 >후보 주도권 토론2 >반론 주도권 토론2 >후보별 마무리 발언 순으로 마무리된다.

언론 3사는 이번 토론회가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 갑선거구 TV토론회 방송은 이날 오후

6시 JIBS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번 TV토론회 참가 자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5% 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로 한정했다.

4·15총선 언론3사 정책자문위원인 김태운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후보 공약이 무엇인지, 어떤 정당에서 누가 출마를 했는지 이전보다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TV토론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목기자

석주명기념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되나

문화재청 보완 요구에
서귀포시 올해 다시 제출
지역 활성화와 연계·추진



나비박사이자 제주학의 선구자인 석주명(1908-1950)이 일제강점기에 2년여간 근무했던 서귀포시 영천동 소재 옛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사진·현 제주대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의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생약연구소는 석주명선생의 제주활동 기반이자 원형이 잘 보존된 근대건축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석주명 선생의 기념사업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문화재청에 신청한 옛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국가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작업을 거쳐 올 2월 말 다시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현장실사와 올해 1월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를 거쳐 자료보완을 요구한 것은 당시 생약연구소에서의 약초 재배와 연구 등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부분이다.

서귀포시는 생약연구소를 석주명 기념관으로 조성을 추진중인 데,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리모델링과 석주명선생 관련 유물·자료 수집방안 등 그의 업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연구소가 위치한 마을에서 2015년부터 추진중인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지역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석주명 선생은 1943년부터 약 2년 1개월 동안 옛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 연구원으로 파견을 지원해 연구소장을 맡았다. 제주 곳곳을 답사하며 나비뿐만 아니라 자연, 방언, 인문 분야를 아우르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제주도 방언집' 등 6권의 제주도 총서를 남겨 제주학 연구의 기초를 세웠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소득 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원 지급

문 대통령, 어제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로 결정
총선 이후 4월 국회에서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회생

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추진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언급했던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도 결정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

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도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부미협기자 bu8385@ihalla.com

코로나19 극복위해 각종 세제혜택

법인지방소득세 범위 연장
착한임대인엔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위기에 직면한 법인이다. 신청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5월 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및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

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 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다. 또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이익을 제기할 경우 제주도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절차를 돕는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4월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5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한리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연을 담다 사람을 품다

"자연을 담은 에너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늘의 태양과 신선한 바람이 에너지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 에너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중부발전이 만들어갑니다.

